보도 자료

선도적인 의료 시스템들이 연합,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한 환자들이 적시에 관리를 받아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새로운 공공 서비스 캠페인 BetterTogether.Health 가 공개된다.

UCLA Health, Providence, Keck Medicine of USC, Dignity Health 그리고 Cedars-Sinai 는 "다시, 의사를 만나십시오. 건강은 행복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LA 를 원하니까요."라는 컨셉의 새로운 ***BetterTogether.Health*** *멀티미디어 교육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역내 병원과 클리닉, 시설들을 보유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최대의 5 개 비영리 의료 시스템은 최신 연합 캠페인인 **bettertogether.health** 를 발표했다.

LA 주민들이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하고, 필요할 때 진료를 받도록 교육한다는 목표로,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11 명의 모범 환자들을 소개하는 이 공공 서비스 교육 캠페인은 "다시, 의사를 만나십시오. 건강은 행복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LA 를 원하니까요."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UCLA Health, Providence, Keck Medicine of USC, Dignity Health 그리고 Cedars-Sinai 는 텅 빈 해변, 고속도로 및 랜드마크를 주제로 한 지난 해의 캠페인을 끝내고, 올해는 적절한 시기의 예방 진료를 통해 건강 문제를 극복한 LA 주민 11 명을 실제 모델로 한 캠페인으로 전환한다. 새로운 캠페인은 일상의 강인함과 영감, 희망을 상징하는 실제 모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인터뷰를 통해, 중증 질환의 도전을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한 이들 용감한 영웅들의 삶을 조명한다.

이 새로운 캠페인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예방 및 생명 구조 의료 서비스, 건강 검진, 의료 지원 등을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받고 있지 않다는 의료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우려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말기 암, 중증 심장병, 뇌졸중 악화 및 기타 심각한 질환들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전역의 수 백여 의료 시설을 보유한 5 개 의료 시스템들은 응급 진료, 주치의 진료, 전문의 진료 및 긴급 진료가 포함된, 지역사회의 의료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침묵의 서브 팬데믹"으로 불리며 적절한 시기에 받아야 하는 의료 서비스를 피하는 사람들을 각 의료 시스템에서 개별적으로 다루기보다, 심각하고 피할 수 없는 건강 문제를 야기하며 새로운 공중 보건 위기로 대두되고 있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0 년 3 월부터 연합한 이들 선도적 의료 시스템들은 지역사회의 생명을 구하고 지역사회가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Providence Southern California 의 최고 경영자 Kevin Manemann 은 *"저희는 이 노력들이 지역사회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의료 시스템들의 협력은 고무적인 시도일 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응할 때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BetterTogether.Health 공공 서비스는 다중 언어 TV 및 라디오, 빌보드, 버스, 쇼핑몰, 신문, 잡지, 디지털, 소셜 미디어 및 기타 다양한 매체들에 캠페인을 전개한다. 자원을 통합함으로써, 단체들이 함께 협력하여 더 큰 성과를 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사회의 건강이 저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저희가 모인 것은,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생활에 필요한 예방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UCLA Health 사장 겸 UCLA Health System 의 CEO 인 Johnese Spisso 는 이렇게 강조했다.

모든 의료 관리 제공자들의 최우선 과제는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이다.

Dignity Health Hospitals 의 남가주 지부 사장 Julie Sprengel 은 *"사람들이 직장과 학교, 가족 모임으로 복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기 검진이나 건강 조치는 등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우리 지역사회가 건강과 웰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응급상황은 멈추지 않으며, 병원들도 하루 24 시간 연중무휴로 응급 진료를 제공한다. 심장마비나 뇌졸중은 신속하게 병원으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흉통, 숨가쁨, 신체 한 쪽의 마비나 심한 두통처럼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질병들은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심각한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중요한 치료를 미루는 것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경우, 즉각적인 치료로 생명을 구하고 장기적인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병원과 의료 관리 제공자들은 여러분께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Keck Medicine of USC 의 CEO 인 Rodney Hanners 는 이렇게 전했다.

아동을 위한 홍역 및 백일해 예방접종,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백신의 시기적절한 접종도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들로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방접종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아동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한다.

Cedars-Sinai 의 사장 겸 CEO 인 Tom Priselac 은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숙련된 의료 전문가들로부터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은 환자와 지역사회가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얻는 데 필수적입니다. 진료받기를 미루지 마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제공자, 진료실, 병원 또는 긴급 진료 센터에 전화하실 것을 권합니다"*